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귀환을 위한 준비

- 21 그때 나는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22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 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 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 23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 24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 25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
- 26 내가 그들에게 달아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 27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두 개였습니다.
- 28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 29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 30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 놓은 금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 예루살렘에 도착함

- 31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 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 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 32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 33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 34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 35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숫양 96마리, 어린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 36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묵상하기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잘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과 기도를 한 후 이어서 성전의 예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구별해 세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말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결단이 인상적입니다(22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많은 사람이 큰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다 기도는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에스라에게서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겸손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인가요, 기도를 먼저 하는 편인가요?
- ② 오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동시에 철저한 준비와 실천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21 그때 나는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2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 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23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24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박와 하사박와 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

26 내가 그들에게 달아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27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두 개였습니다.

28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29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30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 놓은 금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31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 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 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32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 궁굼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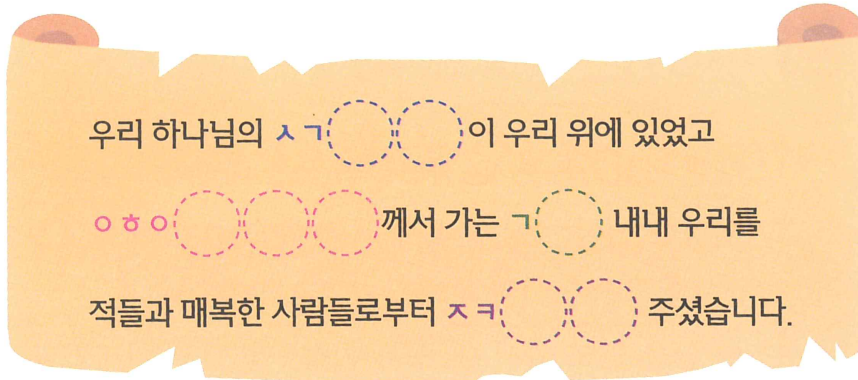
*여정: 여행의 과정 *보병: 육군병사 *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

*간청: 간절하게 부탁함 *매복: 상대를 갑자기 공격하기 위해 몰래 숨어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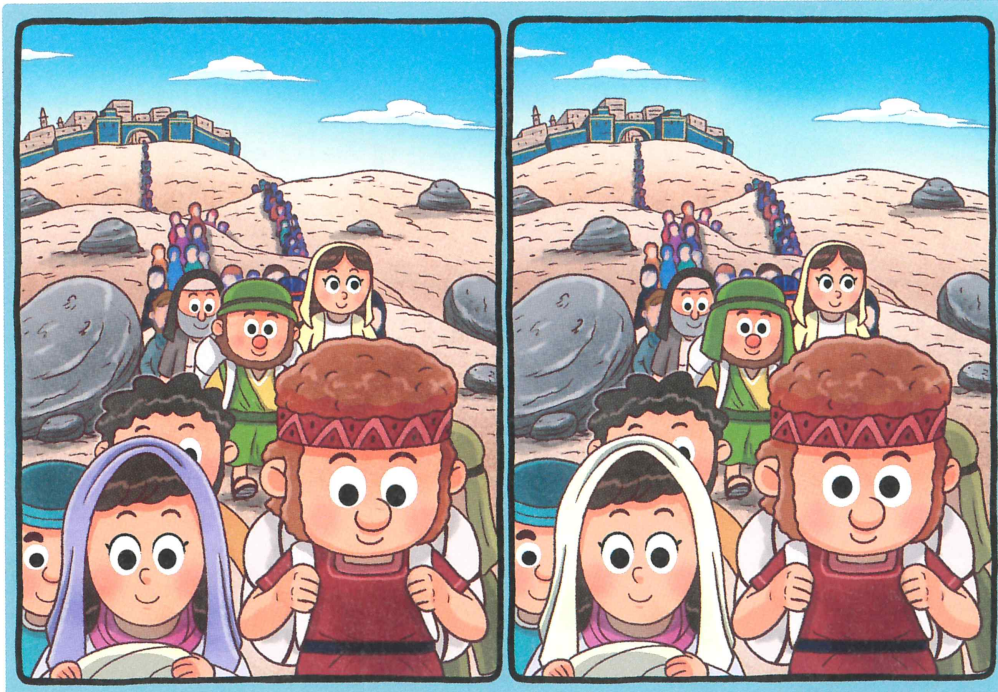
• 말씀 씨앗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는 길 내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예요.

3 말씀새싹 -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31절)



4 말씀 열매 - 그림을 보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셨어요.

5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